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사업추진 먹구름

지도부 바뀐 한국노총 대정부 강경 투쟁 예고 시, 노동인권회관 건립 등 노동계 달래기 나서

노사 상생형 모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의 지도부가 바뀌면서 광주형일자리 등 정부 노동 정책에 강경 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21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제27대

위원장으로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52)을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이 위협을 받는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와 광주시가 주도하고 한국노총이 참여한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자동차의 일자리'로 변질했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노사가 협력·상생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본래 취지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주주인 현대차의 이익만을 대변하다 보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공장을 짓는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동이사제 등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장구가 막혀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반노동적' 인사라는 광주글로벌모터스 현대차 추천 이사의 사임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신임 지도부와 지난 23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

에서 이 점을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그는 "노동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또다시 노동과 참여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한국노총이 다시 시작하려 한다"고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 이후 사업 불참을 선언하고 지난해 연말 열린 자동차공장 착공식에도 불참했다. 한국노총은 청와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광주형일자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노동계 참여를 끌어내려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계와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인 노동인권회관 건립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200억원을 투입해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노동 인권·역사 전시관, 자료실, 노동자 복지·편의시설, 사무공간 등을 갖춘 노동인권회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의 공유재산 결정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1월부터 건축설계 공모, 기본·실시설계용역 등에 들어가 2021년 2월 착공,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의회가 '노동자 지원센터와 기능이 겹치기'로 선심성 사업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유재산 안을 부결하고 건립비 200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의회를 설득해 2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안을 통과시키고 추경예산에 건립비를 반영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노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시민신문위원회 구성, 글로벌모터스 임원의 적정임금 책정 등 노동계와의 협력 방안을 내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다"며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참여를 끌어내고 노사 상생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 '조상 땅 찾기' 성과 10년간 4만8천여명 찾아줘

광주시가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상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아준다.

지난해 9,982명이 1만8,146필지(1,722만㎡)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시행 이후 최근까지 10년간 총 4만8,582명이 9만9,913필지(1억513만 9,000㎡)의 땅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황애란 기자



김영록 지사 해남희망원 위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인 해남군 해남읍 해남희망원을 찾아 거주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한 뒤 훈훈하고 정감 넘치는 시간을 함께 했다. /전남도 제공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사의 "임직원 갈등 파문 확산에 재단 부담 고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최근 불거진 재단 내 임직원 갈등 파문과 관련,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23일 이용섭 시장을 만나 더 이상 광주시와 재단 안팎에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표는 재단 운영 혁신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려 했으나, 뜻하지 않게 재단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파문이 확산되자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신 대표이사의 사직서를 금강간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 대표가 사회복지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재단 경영의 책임을 맡았으나 부하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평생 쌓은 교육자로서의 명예에 흠결이 생기고, 이 시장과 재단에 부담 주는 것을 원치 않아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주복지재단의 혁신과 함께 오는 7월 광주 사회복지서비스를 설립에 대비하고, 출자·출연기관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성수 기자

"정부 성공 지지" vs "제3지대 출범 기대"

▶1면에서 계속

박 의원은 "제3지대의 중도·실용·민생을 기치로 호남 통합정당이 출현한다면 제3당 후보의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승욱(여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저의 총선 출마와 안철수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러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안철수·손학규와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해보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송 의원은 "조만간 안철수와 바른미래당 의원 17명이 모두 오찬을 하며 만난다"며 "그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수목비엔날레 관람객 30만 유치 총력

신규 EID 개발...행사·홍보 대행사 선정 등 준비 순조

전남도가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신규 EID(Event Identity)를 개발, 관람객 유치목표를 30만명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27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에 따르면 최근 신규 EID를 개발하고 총괄 행사 및 홍보대행사 선정을 완료했다.

사무국은 국제행사 브랜드 가치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타이포그래피(전각)를 이용한 로고와 서체에 가독성과 전통성·세련미를 강화한 EID를 개발했다.

비엔날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최적화된 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을 새롭게 구축했다.

또 비엔날레 전시 프로그램의 질적 수

준을 확보하고 지역 타깃별로 효율적 홍보 추진을 위해 총괄행사 및 홍보대행사 등 2018년 비엔날레보다 4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 말 선정했다.

특히 비엔날레의 꽃인 본 전시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큐레이터 7명을 최근 선정했다. 전시관별 주제와 콘셉트에 맞는 국내외의 우수작가를 선정해 수목의 다양한 변화를 연출할 구상이다. 사무국 직원과 수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 10회에 걸쳐 '수목달인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수목이야기' 교육을 매주 1~2회 실시하고 있다.

김성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

장은 "내실있는 행사준비로 관람객 30만명을 유치해 한국수목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중국·일본·프랑스 등 15개 나라 160여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통성과 현대적 창조성을 융합한 다채로운 수목작품을 선보인다. 수목빛깔패션쇼를 비롯한 수목영화제, AI수목 미술전, 5G아트체널 등 차세대 수목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외 모든 관람객을 만족시키는 축제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지역현안 해결 '전남혁신포럼' 6월 출범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역혁신포럼 개최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올 상반기 '전남혁신포럼'을 발족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혁신포럼은 주민·지자체·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 등이 협력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혁신 플랫폼으로, 현 정부의 사회혁신분야 핵심 국정과제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시민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역·량 강화사업 추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이슈, 의제 풀 선정, 타 지역과 연계한 공동의제 발굴 등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됐다.

도는 내달 중 도, 시·군,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대기업,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대학 등 도내 16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남혁신포럼 추진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포럼 추진위원회 구성후 4개월여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 원탁회의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의제화하고 관련 참여기관 등과 매칭해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6월 전남혁신포럼 참여기관과 전국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출범식을 개최해 분과위원회별 선정항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발표·공유하고 의제실행을 본격화하게 된다. /길용현 기자

<h1>임야</h1> <p>바로합니다.</p> <p>당일처리, 010-6834-7400</p>	<h1>투자자모집</h1> <p>금매물/경매 입찰·낙찰물건</p> <p>법적으로 보장.010-3605-5000</p>
--	---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규인·구직·모집·매·부동산·광고·영입·분양·모인

광고국 062) 720-1016, 1017
팩 스 062) 720-1020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 등 각종 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래은행 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영업직 신입·경력직 모집
채권추심직 신입·경력직 모집
법무사 및 금융계 은퇴자 특별대우!

새한신용정보(주)

062.227.0337 | 010.3602.6324
광주지사 광주지방법원 후문 앞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만
근조회환 3만

경조회환 6만원

시의 기타외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